

2024년
고3
3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| 마음의 수수밭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마음이 또 **수수밭**(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한 공간)(**해당 작품에 활용된 '수수밭'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을 지난다. **머릿뿔 몇장 더 없어**(마음에 어두움이 더해짐.) 뒤란으로 간다. **저녁만큼 저문 것**(화자의 어두운 내면 상태)(**화자의 내면 상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이 여기 또 있다.

개밥바라기별(시간적 배경(저녁-밤))이

[내 눈보다 먼저 **땅**(=현실)을 들여다본다]([]: '개밥바라기별'이 화자로 하여금 '땅(현실)'을 성찰하게 한다는 의미임.)

▶ 수련거리는 화자의 마음과 저물어 가는 인생

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(체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임.)(**해당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

보릿고개를 넘은 세월(과거 힘들었던 시절)이 있다

바람은 자꾸 등 짝을 때리고, 절골의

그림자는 암처럼 깊다.(치유되기 힘든 내면의 깊은 상처) [나는

몇번 머리를 흔들고(힘겨운 내면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)(**'머리를 흔'드는 행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묻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화자가 머리를 흔들는 것은 어두운 마음을 떨쳐내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**)]([]: 행간 결침)(**행간 결침이 활용된 다른 작품과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산 속의 산,

산 위의 산을 본다. **산은 올라다보아야**

▶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와 새로운 삶의 목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

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.(화자의 깨달음: 세상의 이치에 따라야 함.)(**화자의 깨달음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[저기 저

하늘의 자리는 **싱싱하게 푸르다.**(인식의 전환 / 푸른색 색채 이미지를 활용)]([]: 행간 결침)

푸른 것들(화자를 응원하는 존재 ①)이 어깨를 툭 친다. 올라가라고

그래야 한다고. 나를 부추기는 **솔바람**(화자를 응원하는 존재 ②) 속에서

내 막막함도 올라간다. 번쩍 제정신이 든다

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**내 속의 목탁새들**(인식의 전환으로 인한 깨달음(불교적 표현))

나를 깨운다. **이 세상에 없는 길을**

만들 수가 없다.(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화자의 깨달음) 산 옆구리를 끼고

▶ 목표를 향한 정진과 도달하기 어려운 어려움

절벽을 오르니,(화자의 고뇌가 해소되는 과정) **천불산(千佛山)**(세상의 이치(불교적))(**'천불산'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이

몸속에 들어와 앉는다.

내 맘속 수수밭이 **환해진다.**(내면의 변화-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. / 마음을 수수밭에 비유함.)**(화자의 희망적인 태도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**

- ▶ 목표 성취의 기쁨
- 「마음의 수수밭」

목표 성취의 기쁨